

도로교통안전공단, 제 2 跳躍 위한 發展方向 논의

- 본부 임직원 · 시도지부장 · 지방방송본부장 등 혁신 전진대회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하태신)이 지난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경기 양평에서 본부 임직원, 전국 시도지부장, 지방방송 본부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혁신 전진대회를 갖고 공단 경영 현황과 제 2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공단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쟁력 있는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경영평가

분석 및 대응방향, 정부고객만족도 증진 방향 및 공단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하태신 이사장은 “고객 최우선 경영, 전문역량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창조, 경영혁신 고도화” 등 CEO로서 경영방침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재민 아픔 덜어주는데 최선

- 경찰청, 최근까지 警力 4만 5천여명 지원 -



이택순 청장이 강원 인제, 평창 등 수해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긴 장마 기간동안 전국 633개 수해지역에 연 417개 중대 등 경찰 4만 5천여명을 동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했다.

특히, 경찰은 20여 차례의 헬기운용으로 실종자 수색 및 고립지역에 구호물품을 공수하는 한편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틀간에는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의 안정을 돕기 위해 주말기간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가용경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유난히 피해가 많았던 강원, 경기, 충북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 54개소에 63개 중대 7천여명의 경찰력을 지원해 주말 수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수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이번 장마로 63명의 인명피해와 영동·충북·경북고속도로 유실, 한강시민공원 전구간 침수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수해복구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주민단체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회관리에 동원되는 부대를 제외한 가용경력을 최대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최철균 경위 「잠재지문」 채취 시약 개발

- 안정성 · 경제성 탁월, 범인검거율 향상 기대 -

충남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최철균(42)경위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문인 '잠재지문'을 쉽게 채취해 낼 수 있는 시약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N-D'으로 명명한 이 시약은 닌히드린과 에탄올을 혼합한 것으로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종이류 등의 증거물을 시약에 담그면 인체에서 분비된 아미노산과 시약이 반응해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청색 지문이 나타난다. 방식으로 지문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없고, 고온으로 열처리를 할 경우에도 폭발 가능성이 적어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불렌, 매직 잉크 등으

로 쓴 글씨가 변형되지 않아 시약을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묻은 지문을 감식해 낸 뒤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필적 감정이 가능하다.

또 새로운 시약은 1l 가격이 3천~5천원에 불과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존시약(수입품의 경우 1당 18만원)의 1/60에 불과하다.

시약 개발 당사자인 최 경위는 『에탄올 등 원료의 적당한 혼합비율을 찾지 못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학 교수들을 찾아 다니며 조언을 구하고 밤낮으로 실험에 매달린 지 3개월여 만에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혼합비율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지문채취용 시약들은 너무 비싸거나, 폭발 위험 등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를 보여 저렴하고 안전한 대체 시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특허를 출원한 새로운 시약이 경찰청 혁신단의 우수사례로 채택된 만큼 전국 일선경찰서로 확대 보급하는 한편 경제성과 상품성 등을 검토한 뒤 국제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시약 개발로 인해 나날이 지능화, 흉포화, 광역화되는 신종범죄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선 경찰에 확대 보급되면 사소한 절도사건까지 현장 출동, 지문감식을 벌일 경우 범인 검거율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海警 지방본부 오는 10월 지방해양경찰청 격상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기로 -

부산, 목포, 동해 등 해양경찰청 지방본부 3곳이 오는 10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격상된다. 단, 인천지방해양경찰청본부는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와 최종협의를 마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편성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지방해양경찰청 격상에 따라 최고 책임자 계급은 총경(지방해양경찰본부장)에서 경무관(지

방해양경찰청장)으로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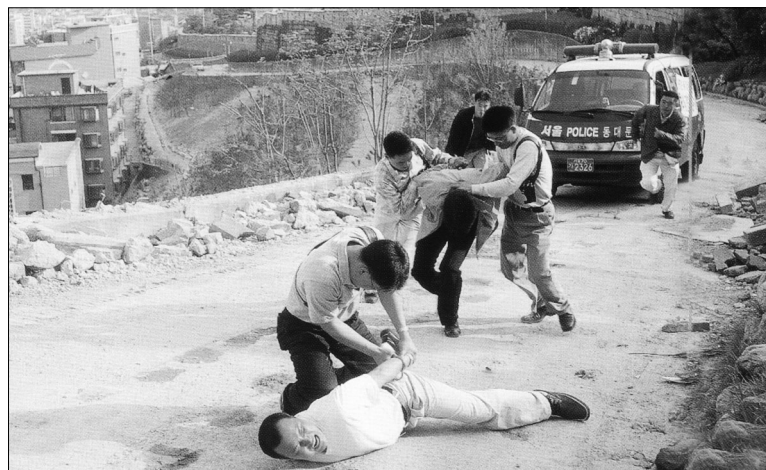
또 지방해양경찰청장 아래 총경급 과장, 경정, 경감급 계장 체제로 지휘라인을 구성하고, 지방청별로 실무인력 60~80명을 추가 보강하는 한편 산하 해양경찰서에 대한 인사, 예산, 감사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장기적으로 지방해양경찰청 독립 청사 마련을 위해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상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4월 인천(인천, 태안, 군산해경서), 목포(목포, 제주, 여수, 완도해경서), 부산(부산, 울산, 통영해경서), 동해(동해, 속초, 포항해경서) 등 지방본부 4곳을 발족시켰으나 지방해양경찰본부장 계급과 산하 해양경찰서장 계급이 총경으로 같은 계급이어서 인사불관한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범인검거중 입은 피해도 보상

경찰청, 의로운 사망 · 부상 지원책 강화



경찰청이 살인성인의 정신으로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상 혹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의 일환으로 현재 범죄신고와 보상금의 경우 신고한 범죄의 경중을 위주로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범인검거 과정에서 피해정도 등도 보상금액 산정시 적극 고려토록 했다.

또한 화재나 안전사고 현장에서 타인을 구제하다가 희생당한 사람이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기초자료 작성시 타인에 대한 구제 행위에 관한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이용방법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현재 경찰청과 「(주)SK」가 함께 하고 있는 강력범죄 피해 (유)자녀 대상 '행복날개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인을 검거하다가 부상 당해 생계유지, 자녀 학업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경우에도 수해 대상에 적극 포함키로 했다.

인천경찰청 外事課 신설 예정

연간 2천 260만 입출국자 등에 고품질 치안서비스 제공

인천경찰청에 외국인 범죄를 비롯한 해외업무 전담할 외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관내에 두고 있어 외사 치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 보안과 산하에 있던 외사계, 외사수사 1대, 외사수사 2대를 통합해 외사과로 확대 개편키로 하고, 초대 과장으로 황경환 인천 동부서장을 임명했다.

신설 외사과는 ▲기획, 예산, 외국인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외사 1계 ▲인천공항과 인천항 외국인사범 관련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외사 2

계 ▲불법 입출국 사범, 외국환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외사 3계로 구성될 예정으로, 인천 경찰청은 이와관련 직제개편과 인력충원이 마무리되는 10월까지 당분간 외사과장 지휘 아래 현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그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연간 입출국 인원이 각각 2천 200만명 및 60만명에 이르는데다 체류 외국인도 매년 15% 가량씩 증가, 3만 7천여명에 달해 외사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카메라 현장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同 경찰서에서 근무중 순직한 동료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의 기금을 모금, 추모비를 건립하고 故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李相斗의 교통상식(46)



회사에 입사해 이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천모씨(29)는 그

마련을 위해 해약해야만 했다. 며칠전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는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정체를 기다리게 되었다.

것이다.

천씨는 모범운전사의 수신호는 위반했지만 경찰관의 수신호가 아니었고, 당시 신호기의 내용은 녹색진행 신호였기 때문에 벌일 없겠지 생각하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고조사 결과는 천씨에게 가해자라는 판정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조사경찰관에 의하면 신호등 있던 교차로에서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신호기에 우선하여 적용되

모범운전사 수신호는

교통경찰관과 같은 효력 적용돼

얼마후 진행신호가 돼 앞차를 따라 진행하려는데 교차로 정체를 정리하던 모범운전사가 정지하고 수신호를 하는게 아닌가!

천씨는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마침 신호가 녹색이니 에라 모르겠다하고 진행을 했다. 그러나 웬걸!!!

오른쪽 도로에서 모범운전사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나온 택시와 교차로상에서 충돌하고 만

며, 또한 모범운전사와 헌병의 수신호도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효력이 있다(도로교통법 제 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6조 규정)는 설명이었다.

결국 천씨는 모범운전사의 수신호를 위반한 사고에다 공공로에게도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탑승객 3명의 부상이 커 종합보험 처리 외에 별도 합의까지 해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경우신문 구독신청

02) 2234-1881

미국보청기



경우회 인천시지부자문위원장
전) 대한노인회 중앙회운영국장
대표 김 두 열

전·현직 경찰관님께

15년 전통

미국보청기



부시 미국(전)대통령
포드 미국(전)대통령
레이건 미국(전)대통령
이 사용하는 보청기

▶▶▶ 잡음이 전혀없고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 15년 전통의 보청기 전문회사입니다.
▶▶▶ 아주작은 소리도 아주 잘 들립니다.
▶▶▶ A/S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 10년 보증서 드림

서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3가 25번지 (구,서울시경 맞은편)
전화 : (02)752-2580, 752-2589 핸드폰 : 011-229-0055

인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22-1 푸른 B/D 2F
전화 : (032)469-0033 핸드폰 : 011-229-0055